科學街 뉴우스

北傀 초조감으로 挑發격화 가능성

國民會議 統一安保보고회

金允基博士에 咸與章 포상

국민회의 統一安保보고회가 11월 2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렸다.

朴대통령은 이날 致辭(박상훈 운영위원장 대독)「北韓공산집단은 그 內部사정이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럽게만 되어가고, 상대적으로 우리 국력은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대해 초조한 나머지 그들은 지금까지의 각종 무력도발과 간접 침략행위를 발악적으로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會議에서 郭위원장은 朴대통령을 대리하여 서울濟州지역의 有功대의원을 포상하였다.

이날 金允基·科總會長은 (영등포 대의원) 咸與章을 포상 받았다.

金允基博士

李泰圭 博士

서울시 문화상수상 〈자연과학부문〉

한국과학원 명예교수이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기술고문인 李泰圭 박사는 지난 12월 8일 서울시청회의실에서 35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시상식에서 자연과학부문 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향토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한 공로자에게 인문과학·자연과학·예술·교육·언론·건설·체육 등 7개 부문에 수여하는 상으로서 李博士는 한국과학 발전과 후배양성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으며, 논문「비뉴우턴 유동」및「액체의 특수구조」이론의 전개로 기초과학 및 이에따른 응용화학 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본상(상금 200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李泰圭博士

徐英甲 博士

서울시 문화상수상 〈建設部門〉

대한토목학회 회장이며 고려대학교 교수인 徐英甲 박사는 지난 12月 8日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문화상 시상식에서 건설부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상은 향토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한 공로자에게 인문과학, 자연과학, 예술, 교육, 언론, 건설, 체육 등 7개 부문에 수여하는 상이다.

徐박사는 토목관계의 연구 및「철근콘크리트」등 저술로 토목기술을 향상시켰으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 시정평가교수단으로 제1한강교, 남산1호터널, 광진교를 비롯 주요 구조물과 시설의 안전진단에 참여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했을 뿐아니라 기술적 공법을 이용 공사비를 절약한 공로가 탁월, 본상(상금 2000백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徐英甲博士

韓國科學史學會 심포지움 開催

『量子力學50年』

한국과학사학회(회장 權寧大)는 12월 10일 국립과학관 영사실에서 76年度 年會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4부로 나눠어 진행되었는데 심포지움Ⅰ 총회 심포지움Ⅱ 論評 및 討論 順으를 열렸다.

심포지움의 연제와 연사는 다음과 같다.

제1부
심포지움

◎ 古典物理學에서 量子物理學으로 — 仁荷大 崔東哲

◎ 自然記述方法의 理論的變遷 — 圓光大 庾基洙

◎ 不確定性原理와 決定論 — 高麗大 金貞欽

◎ 粒子物理學의 展開 — 韓國科學院 趙炳夏

제2부
심포지움

◎ 重子化學의 發展 — 가톨릭大 金宜洛

◎ 分子生物學의 起源 現況 및 展望 — 서울大 自然大 河斗鳳

◎ 量子力學이 社會科學에미친 影響 — 서울大 經營大 尹錫喆

◎ 現代物理學과 哲學 — 梨花女大 蘇興烈

싸이엔스 클럽 94회 오찬회 개최

서울국제싸이엔스클럽(회장 金京一)은 지난 11월 18일 과학기술회관에서 94회 월례 오찬회를 갖고 李世得 會員(大阪藝術大學 客員敎授)의 『國展을 通한 美術의 이야기』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한편 12월16일에 송년만찬회를 갖고 다채로운 「프로」를 가졌다.